

지역 소식통

고창군, 8개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의결

고창군이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를 열고 경계결정을 의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해 고창군이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8개지를 일곡 1지구, 수월지구, 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총 8개지구(1297필지, 78만2889㎡)다.

고창군은 지난해 3월부터 재조사측량에 착수해 토지소유자 경계조정 협의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각 필지별 경계를 결정하게 됐다.

토지 소유자는 이번 경계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은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부터 시작된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원안 14건, 수정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병래의원은 읍·면민의 날을 통합해 '군민의 날'로 만들고 현재 읍·면민의 날 행사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군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지원해 부안군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대 의원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청년 공무원들의 안정된 공직생활 정착과 사기진작을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5분 자유발언, 건의안 등에 대해 세밀한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 및 정책 수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주민 안녕·무병·풍년 기원'

고창군 오거리당산제보존회, 정월대보름 맞이 당산제 개최

고창군 오거리당산제보존회(회장 고복환)가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이던 지난 23일에 저녁 읍내 중앙당산 일대에서 마을 조상신과 수호신에게 주민의 안녕과 무병,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제43회 고창오거리당산제'를 열었다.

고창오거리당산제는 민족 명절인 설에서부터 정월대보름까지 고창읍 동서남북 네거리를 수호하는 당산의 당제를 정월초사흘과 초팔일에 지낸다.

이후 정월대보름 전야 고창읍 중앙에 위치한 중앙당산에 모여 고을의 연운을 기원한다. 보름간의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과정을 통해 고창사람의 정체성을 전승해가는 우리만의 전통문화 화축제다.

이번 행사는 당신 모심굿, 제례, 제의 등 당산제를 지내고 국악단 공연, 달집태우기, 당산웃입히기 등 대동놀이 펼쳐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갔다. 고창군 오거리당산제보존회 고복환

회장은 "이번 고창오거리당산제를 통해 고창군과 고창군민의 안녕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도 더 큰 정성과 소망을 담아 당제를 드렸다"며 "연등놀이, 줄놀이 등 군민의 대동단결을 위한 대동놀이와 지역의 액운을 쫓고 태평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등 행사를 확대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오거리당산제가 더욱 발전되어 고창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민속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 '손 잡다'

정읍시-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 확산 협력체계 강화

정읍시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주지청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지역내 5~50인 미만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안전보건관리 실태 지도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감축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3월부터 40세 이상 고위험군 'C형 간염' 검사 무료

연말까지 고창군민 대상

고창군보건소가 오는 3월부터 만40세 이상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C형간염 무료 선별검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C형간염 무료 선별검사는 연말까지 만40세 이상(1983년생부터) 고창군민 대상이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창군 보건소에 방문하면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검사 1주일 후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유소견자에게는 정밀검사와 치료를 안내하고 확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암 검진검진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안내한다.

C형간염은 한번 감염 시 70~80%가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이후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경구 치료제 복용 시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높은 검사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C형간염은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선별검사의 중요성이 크다. 무료 선별검사 추진으로 C형간염 조기 발견, 유소견자 관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간암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인상...양육비 부담 낮춰

정읍시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을 확대한다.

시 보건소는 올해 영유아 기저귀 구입 지원금을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을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두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인 이상)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면 자녀 별로 각각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 아이가 2세 미만일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두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21명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영아의 출생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순회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개최

38개 사업·사업비 49억원 확정, 확정된 농가 대상 교육 실시 11월 종합 평가회 개최해 우수 사례 발굴, 개선방안 마련 계획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는 지난 22일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용관 소장을 비롯해 정읍시의회 의원, 농업 관련 교수, 연구기관, 농협 기관장, 농업인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별 적격대상자 선정을 위해 분과별로 사업 목적, 사업내용과 신청자의 영농경력, 경영능력, 사업의 효과 거양 등을 세밀히 검토해 올해 38개사업, 49억원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식량작물 분야에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등 11개 사업 31억1500만원, 소득작목 분야에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보급 등 6개 사업 4억7000만원이다. 농촌사회분과는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등 21개 사업 13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했다.

또한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확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종합 평가회를 개최해 우수 사례 발굴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관 소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집중 발굴해 나가겠다"며 "현장 밀착형 영농기술 지원도 병행해 지도사업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부안새만금 공공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가 공모한 2024년 공공스포츠클럽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부안군, 국비 특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 선정

부안새만금 공공스포츠클럽

(사)부안새만금 공공스포츠클럽(회장 최우식)이 대한체육회가 공모한 2024년 공공스포츠클럽 특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부안새만금공공스포츠클럽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우수한 체육시설 여건, 시설 접근성, 부안군의 지원 의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지역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전문 지도자와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즐기고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등 선진형 스포츠 서비스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점사업이다.

군과 부안새만금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선수 출신 지도자들의 수준 높은 지도로 군민들로부터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군민 체육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우식 회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스포츠 복지 확대가 기대되고 이와 더불어 주민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최, 클럽 홈페이지 제작, SNS 등을 통한 클럽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